

복지데스크

10 호남신문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보성군, 회천면 행복지킴이단,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등 주민 관심·참여 유도

보성군 회천면 행복지킴이단(위원장 노정이·김용섭)은 지난 26일 복지 이장, 복지기동대, 행복지킴이단원과 함께 2019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원인 행복지킴이단 및 복지기동대는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후 회천면 소재지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복지 소외 계층 발굴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행복지킴이단은 1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 밀착 직종 종사자, 복지 이장 등으로 구성되어 우리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 혜택이 달지 못하는 사각지대 대상 가구가 있는지 관찰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김용섭 공동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아직도 많다.”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복지 위기 가구 발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노정이 회천면장은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들이 복지 위기 가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지킴이단원들과 함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듣고 보고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군 “‘오블라디 오블라다’ 함께 살아가요”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

후천적 장애 갖게된 중도 장애인 삶 응원 의미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2019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오블라디 오블라다’ 행사를 최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슬로건인 ‘오블라디 오블라다!’는 아프리카 루루바 부족의 언어로 ‘삶은 계속된다’는 뜻으로 사고나 병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장애인의 삶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관내 5~8세 아동 180

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극단 멋진친구들의 무료 공연으로 진행 되었으며 사회, 인형극 출연, 체험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최가 되어 인형극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연하였다.

이밖에도 아동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훈자팡이, 접자, 월체어 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 체험을 운영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들과 교감하고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

이’이며 장애인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사회통합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영암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기획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24명)을 활성화했다.

매주 1회 지역사회기반교육과 직업체험 프로그램, 나들이 프로그램, 전남권이용호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자기주장대회 등에 참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순천시 주민력 강화 위한 ‘우리동네 복지 아카데미’ 개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반

순천시는 최근 복잡한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력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 복지아카데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YMCA 2층에서 개최된 이날 교육

은 지역사회 리더들이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들 8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참석한 전남복지재단 이영훈 차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와 민관협력’을 주제로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과 함께 민관 협치의 중요성을 전달했으며,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은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경영의 지역 전문가답게 ‘마을복지계획과 지역 특화사업’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문제 해결은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민관 협력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마을복지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31일 광주광역시의 우수사례전시마킹을 계획하고 있고, 읍면동 복지특화사업 공모를 실시해 ‘모두가 행복한 순천, 더 따뜻한 복지 도시 순천’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기업은행, 장애인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금융지원·판로확대·지원정책 홍보 등 상호협력

기업은행은 지난 29일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IBK 동반자금융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기업의 금융지원, 판로확대, 지원정책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을 기업은행에 추천하고 기업은행은 해당 기업에게 저리의대출을

지원한다. 또 센터 주천 기업 소속 근로자와 가족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과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 동반자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광산구